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의미요법의 적용

김정애^{1*}

Application of Logotherapy for Enhance Self-Differentiation

Jung-Ae Kim^{1*}

요약 본 논문에서는 Bowen의 분화이론과 Frankl의 의미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의미요법은 Bowen이론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또한 의미요법이 적용된 자아분화 이론은 내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dissertation researched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Logotherapy with Self-Differentiation theory of Bowen. The Logotherapy is to complement the limit of Self-Differentiation theory of Bowen. And the Self-Differentiation theory of application to Logotherapy gives a many help to a patient

Key Words : Logotherapy, Self-Differentiation, Bowen, Frankl

1. 서론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의 미분화에 대하여 치료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 근원가족과 부부, 부모-자녀문제를 통찰하게 돕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보웬의 이론이 내담자의 높은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가족 체계에 대한 통찰을 하기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윗세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며, 지나친 내면 탐구 활동을 고집하여 자기 비난 등을 통한 절망감에 빠져 오히려 자기분화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Bowen의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미요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Bowen의 분화이론과 치료기법

2.1 Bowen의 분화이론

자아분화란 한 개인의 지성이 정서에서 분화된 정도를 말하며,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말한다. 조작적 정의는 Bowen이론에 입각하여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에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

의하였다. 또한 공생적 관계(자아 개체성으로 떨어져 나오지 않은 관계)는 자아분화 척도에서 점수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해 미해결된 공생적 애착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고 정신분열증 가족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Bowen은 정서적 기능과 지적기능을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 자아분화 수준을 설명하였다.

2.1.1 가장 낮은 자아분화 수준 (0-25)

이 수준의 사람들은 용해정도가 심하여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이들은 정서체계가 불안할 때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과 사회적 역기능을 유발한다. 특징은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자아개념 발달이 미성숙하며, 자아 상태가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임상으로 볼 때 만성적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화는 0-10정도이고, 정신파탄이나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자들은 대체로 25미만이다(박혜련, 2002).

2.1.2 낮은 자아분화 수준(25-50)

이 범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능력과 확신이

¹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김정애(jesuskja@hanmail.net)

부족해서 타인을 모방하고, 기능 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남현순, 전영주, 황영훈 역, 2005). 또한 불안이 낮으면 기능을 잘 하지만 불안이 높을 때는 역기능적이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2000). 융합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자아정체감이 분명하지 못하여 자기신념과 의견은 있어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영향을 받아 쉽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서적 체계와 반응에 유도당하기 쉽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김유숙, 1998).

2.1.3 보통 자아분화 수준(50-75)

이 수준은 정서적 체계와 지적체계가 충분히 분화된 상태이다. 이 두 체계가 불안이 증가 할 때도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계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각자 정해진 위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생활은 좀 더 질서가 있고 폭넓은 사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진짜자신이 가짜자신보다 많고, 목표지향 활동이 가능해 진다.

2.1.4 높은 자아분화 수준(75-100)

이 범주에 속하는 수준은 하나의 이론적인 상태로서 개인이 이 수준에 도달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드물고 거의 완전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기능 하는 상태를 뜻한다(김정택, 심혜숙, 1992).

이 범주에 든다면 어려서부터 그들의 조부모로부터 독특한 개체로 그 존재가 인정되고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하면서도 어떤 틀에 고정되지 않는 사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가며,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가히 이상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2.2 Bowen 치료기법

치료의 근본목표는 분화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분화수준이 낮으면 불안이 생겼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목표를 향해 행동하지 못한다. 반면에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된다.

가족체계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가족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개인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가족관계를 개방하고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족 치료에서 삼각관계는 가장 작은 단위의 안정된 관계체계이지만, 이 안정감은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고 오히려 상호간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족 정서를 혼란하게 한다.

2.2.1 가계도를 통한 교육

Bowen의 가족치료에서 교육은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들은 가계도를 통하여 가족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상담자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족관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상담자는 가족들이 감정에 의해서 얽매어 있으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는 감정체계를 가르친다. 감정체계가 현재 핵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킨다. 감정체계의 뿌리는 원 가족에서 자신들이 자라면서 가졌던 상호작용의 방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인식을 시킨다. 현재 자신의 핵가족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원 가족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나간다. 다세대 전수과정을 이해시키고 세대를 통해서 전이되는 내용과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이해시킨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으며 투사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교육시킨다. 자녀들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가족들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한다. 이러한 모든 개념들과 체제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가족들로 하여금 지적능력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McGoldrick과 Gerson(1999)은 교육을 위해서 치료자들이 가계도를 사용해야 하며, 3세대 이상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 되어 복잡한 가족유형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McGoldrick과 Gerson(1999)은 가족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과거의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관련성을 알 수 있게 하며 가족구조나 생활상의 큰 변화가 생김으로서 나타난 가족관계나 과거의 질병양상을 가계도상에 정리하면서 무엇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추론하기 쉽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2.2 탈 삼각관계

자아분화는 자신과 관련된 삼각관계를 인식하고 탈 삼각화해야 한다(김유숙, 1998). 이러한 탈 삼각관계를 위해서 치료자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관계와 다른

종류의 치료적 삼각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호작용과는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치료자는 가족들이 불안을 일으키며 치료자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세로 문제를 분석하며 가족들에게 지적체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치료자는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고 원인을 이해하도록 하므로 문제를 재조직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가족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다.

2.2.3 질문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는 점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질문이다(김용태, 2001). 질문을 통해서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분화수준은 지적활동을 통해서 높아지는데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목표 지향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분화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치료자는 질문을 한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한 불안보다는 분화수준이 낮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불안의 감정은 자신의 분화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분화수준을 바라보도록 한다.

2.2.4 의사소통

Kerr와 Bowen(1988)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에 있어 역기능적 정서체계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즉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면 감정적 의사소통을 이성적 의사소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숙제를 하지 않고 노는 아이에게 “너 가서 숙제를 못해!”라고 하지 않고 주어를 나로 바꾸어 “나는 네가 숙제를 먼저 한 후 놀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I-message 대화법). 이러한 자기진술은 상대방을 공격 혹은 억압하거나 설득하려는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자아분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분화향상을 위한 의미요법의 적용

3.1 의미요법의 이해

Frankl은 인간이 삶의 의지와 의미를 갖지 못했을 때 ‘실존적 공허’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의미에의 의지가 좌절된 상태라고 보았다. Frankl은 모든 갈등이나 우울, 불안, 공포 등이 반드시 신경증은 아니고, 모든 고통이 반드시 병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존적 공허’ 다른 표현으로 ‘내면적 공허’를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해했고 이는 삶의 무의미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S. L. Jones; R. E. Butman, 1991). 따라서 의미의 회복을 문제 해결로 보며 의미요법은 신경증의 치료를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Frankl, 1968).

Frankl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요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관해 근심, 걱정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가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을 견디게 된 원인은 바로 ‘의미에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Frankl은 1920년대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이론을 의미요법이라고 불렀다. 1938년부터는 의미요법을 대신할 이름으로 ‘실존분석(existential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1940년대에 Ludwig Binswanger가 자신의 이론에 ‘실존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Frankl은 그것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의미요법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Frankl, 1967).

3.2 의미요법의 치료방법

의미요법은 삶에 대하여 비관적, 비극적,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의미는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낙관적 시각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의미요법의 상담은 내담자에 앞서 우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상담자가 삶의 의미를 잃은 내담자로 하여금 의미를 발견하도록 접근하는 것이라고 정의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1) 역설적 의도 (2)반성제거(사고중지) (3) 정신지도 등이다.

역설적 의도: 이는 강박증, 불안, 공포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단기간의 적합한 치료로 적용된다. 강박증은 강박적 사고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면 할수록 심리적인 에너지 소모가 크고 더욱 강박적 사고, 불안, 공포적인 사고가 강화,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설적 의도를 통해서 치료한다(Frankl, 1967). 강박증이나 불안 공포증에서 볼 수 있는 행동양식은 내담자가 어떤 증상에 대한 재발의 두려움에 반응하

는 예기불안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공포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다시 발생 될 것에 대하여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증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따라서 증상→불안, 공포경험→증상(재발)→불안, 공포증(강화)의 귀환기제가 형성되며 이런 악순환이 신경증이 될 수 있다. 즉 치료적 개념으로 이런 강박적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회피,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소망한다는 개념이다(Frankl, 1968). 역설적 의도에 의해서 환자가 강박관념과 싸우려고 하거나 불안, 공포증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비웃어 버리고 심리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병을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증상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Frankl, 1967).

반성제거: 신경증은 과잉반성(hyper-reflection)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로 보고 이를 중단시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며,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치료기법이다(Frankl, 1968). 이를 다른 용어로 사고중단법이라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증세에 대해서 관찰이나 분석이 지나쳐 그것이 불안, 공포를 낳게 되고 다시 증상에 대해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결국 신경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반성제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망각의 능력을 이용하여 지나친 ‘자기비난,’ ‘죄의식’으로부터 관심의 재배열 또는 주의전환을 통해서 심리적 질환으로부터 회복시킨다는 기법으로서 의미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한다고 보았다.

정신지도: Frankl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는 예전 같으면 성직자를 찾아갔을 것인데 성직자에게 가기를 꺼려하여 의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학적 정신지도(medical minist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겪는 역경이나 고통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신적 지도와 치료를 의사가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Frankl, 1967). Frankl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시에는 사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정태연역, 1979)고 주장한다.

3.3 분화향상을 위한 의미요법 적용

Bowen의 분화 이론에서는 가계도와 삼각관계를 지각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가 현재 처한 정확한 입장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가계도와 삼각관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가 자기를 개선할 만한 내적 힘이 없어 자신의 현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윗세대에 돌림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방안은 의미요

법의 인간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 Frankl은 인간이 내외적인 힘이나 조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외부적 힘과 조건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도 지닌다고 말한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당연히 제약을 받지만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그 자신에 대해 초연해 질 수 있는 ‘자기-분리’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는 존재로 보았다. 의미요법의 인간관에서는 현재 주어진 내담자 자신의 모습이 많은 부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분화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책임도 내담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을 훈련과 경험의 계기로 삼아 도약하는 발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3.1 의미요법의 치료방법과 분화 향상

내담자를 존중하여 환자나 아픈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Bowen이론이나 의미요법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의미요법에서 개인의 결단과 의미, 의지를 이해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분화를 위한 치료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Bowen의 질문과 역설적 의도의 적용: Bowen의 가족치료방법의 하나인 질문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치료자는 질문을 할 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계속 불안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 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역설적으로 더 불안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다. 불안은 자아 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불안이 해결될 때 분화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이 치료방법을 적용할 때, Bowen 이론에 의해서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알게 하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더 불안하다고 하여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심각한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내담자의 인지 활동(가계도 분석, 삼각관계분석, 의사소통 분석)과 반성제거의 적용: Bowen의 치료기법들은 대부분 지적인 요소가 많다. 이해해야 하고 또는 자기 관찰과 탐색을 해야 한다. 가계도 분석, 삼각관계분석, 의사소통 분석 등은 모두 내담자의 내면 반성에 의존하고 있다. 의미요법에서는 과잉반성(hyper-reflection)으로 인해 신경증이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합당한 지적이다. 내면 탐색의 경우 장점 보다는 단점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담자 스스로가 지나친 ‘자기 비난’ 과 ‘절망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

Bowen의 치료기법에서는 어느 정도 내담자가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극복할 내적 힘이 빈약 했을 때는, 의미요법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반성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내면 탐색이 아닌 육체적 활동(운동, 등산 등의 활동)을 하게 함으로 정신이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3.3.2 보웬의 분화이론과 의미요법의 적용점

의미요법과 Bowen의 분화이론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첫째, 유사점으로 두 이론은 모두 보다 개인에 집중한다. 보웬의 이론은 가족 체계의 입장에서 서 있지만 가족 체계 안의 한 개인을 중요시 한다. 의미요법 역시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는 데 치료목적을 둔다. 이 유사점에서 우리는 두 이론을 한 내담자에게 적용할 근거를 찾는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적인 치료기법에서 Bowen의 질문과 의미요법의 역설적 의도는 상호보완적인 적용이 된다. 셋째, 내담자의 지적 능력에 따라 보웬의 이론과 의미요법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스스로 극복할 내적 힘이 빈약 한 내담자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의미요법의 반성제거를 적용함으로 바람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에 대한 의미요법의 응용 가능성

본 논문에서는 Bowen의 분화 이론을 살피면서 의미요법적 치료방법들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Bowen의 분화 이론과 의미 요법의 이론은 적용 가능한 면이 있다(철학적 바탕, 대상, 치료기법).
2. Bowen의 분화이론과 의미요법의 이론은 상반되기도 한다(반성제거).
3. 이러한 상반된 의미 요법의 치료방법들은 Bowen 이론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의 미분화에 대하여 치료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 근원가족과 부부, 부모-자녀문제를 통찰하게 돕는데 유용하다. 부부의 미분화는 세대를 더할수록 분화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정신 내적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가족전체를 다루는 통찰적 접근이 성공한 이후에 각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치료가 요구된다. 이때 의미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Bowen의 분화이론과 의미요법은 적용가능하며, 의미요법은 Bowen이론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미요법이 적용된 분화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도서

[1] 김유숙(1998).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 김용태(2001).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3] 김정택, 심혜숙(1992). Murray Bowen의 정신 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서울: 서강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4] 박혜련(2002). Bowen의 가족치료 적용을 통한 한국적 의사소통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5] 송성자(1994). 체계론적 가족치료의 기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2000). 가족치료총론. 서울: 동인.

[7]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8]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 (Ed.), New York: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_____.(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Inc.

[9] Frankl, V.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_____(1968). The Will to Mea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_____(1978). The Unheard Cry for Meaning. New York: Simon & Schuster.

_____(1979). The Unconscious God, 정태현 역, 무의식의 신, 서울: 분도출판사.

_____(1983). The Doctor and the Soul: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 이현주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서울: 양영각.

_____.(1983). Man's Search for Meaning, 김재현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10] Jones, S. L. & Butman, R. E. (1991)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82.

[11]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남현순, 전영주, 황영훈 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12]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Mazel.
- [13] McGoldrick, M., Gerson, R., & Shellenberger, S.(1999).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A Norton Professional Book.
- [14] Welter, P. R.(1997) Counsel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정태기 역, 기독교 상담과 의미요법 서울: 두란노.

김정애(Jung-Ae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한민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학사)
- 2006년 2월 : 한남대학교 학계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과 졸업(석사)
- 2006년 2월~현재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 2006년 9월 ~ 현재 : 행복한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가족치료, 정신분석, 청소년 상담, 사회복지